경향신문

최재은 설치미술가 ‘DMZ 프로젝트’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적 본전시 초청

24 February, 2016 | 한윤정 기자

최재은 설치미술가 ‘DMZ 프로젝트’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 초청

재일 설치미술가 최재은씨(63·사진)가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 공중정원 프로젝트로 올 5월28일부터 11월27일까지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본전시에 참가한다. 최씨는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일본관 대표로 참가한 적이 있어 짝수와 홀수 해에 번갈아 열리는 비엔날레 건축전과 미술전에 모두 참가한 작가가 됐다.

최씨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와 협업으로 선보이는 공중정원 프로젝트는 DMZ에 매설된 지뢰에 대한 염려를 덜고 사람과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상 3~6m 높이에 대나무와 천연 재료를 이용, 총 15㎞ 길이의 공중정원 13개를 만들고 그곳에 2개의 ‘바람의 탑’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철원 DMZ 내에 있는 평강고원을 배경으로 구상된 이 프로젝트에는 궁예가 백제와 연해주까지 이르는 ‘대동방국’(大東方國)이라는 이상적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최 작가는 지난해 11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강연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궁예도성 복원, 경원선 구간 복원공사 진행, 공중정원 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자은행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번 건축전에서는 ‘몽(夢)의 정원-드리밍 오브 어스(Dreaming of Earth)’란 제목으로 모형, 설치, 영상, 슬라이드, 문서, 사진, 자료 등 다양한 아카이브로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 건축전 총감독인 칠레 출신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지난해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를 전시 주제로 제시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계의 도전과 결과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본전시에 한국 작가가 참가하는 것은 2012년 승효상씨에 이어 4년 만이다.

한윤정 선임기자 yjhan@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42123275&code=100100